



문화매일신문



제1524호

2024/1/25/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북도, 올해 철도분야 국비 8,425억원 확보 '철도교통 시대' 개막!

동해중부선(포항~삼척) 등 4개 노선 일반철도사업 24년말 줄줄이 개통!

경상북도는 2024년도 철도 사회간접자본(SOC)분야 국비 8,425억 원을 확보하여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등 주요 철도 SOC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기재부 및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부안 8,303억 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2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경북도는 2024년도 철도분야에서 8,4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추진 중인 주요 일반철도 사업으로는 동해중부선(포항~삼척, 146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2,125억 원), 동해선 전철(포항~동해, 13억 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23억 원)가 반영됐다.

위의 4개 노선 일반철도 사업은 모두 올해 말 사업 마무리 예정으로 줄줄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경북도는 사통팔달 철도교통시대 개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권광역전철(구미~경산, 172억 원), 대구1호선 하양연장(239억 원) 사업도 금년말 개통이 예정되어 대구광역권으로의 광역철도교통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통 편의 증진 및 광역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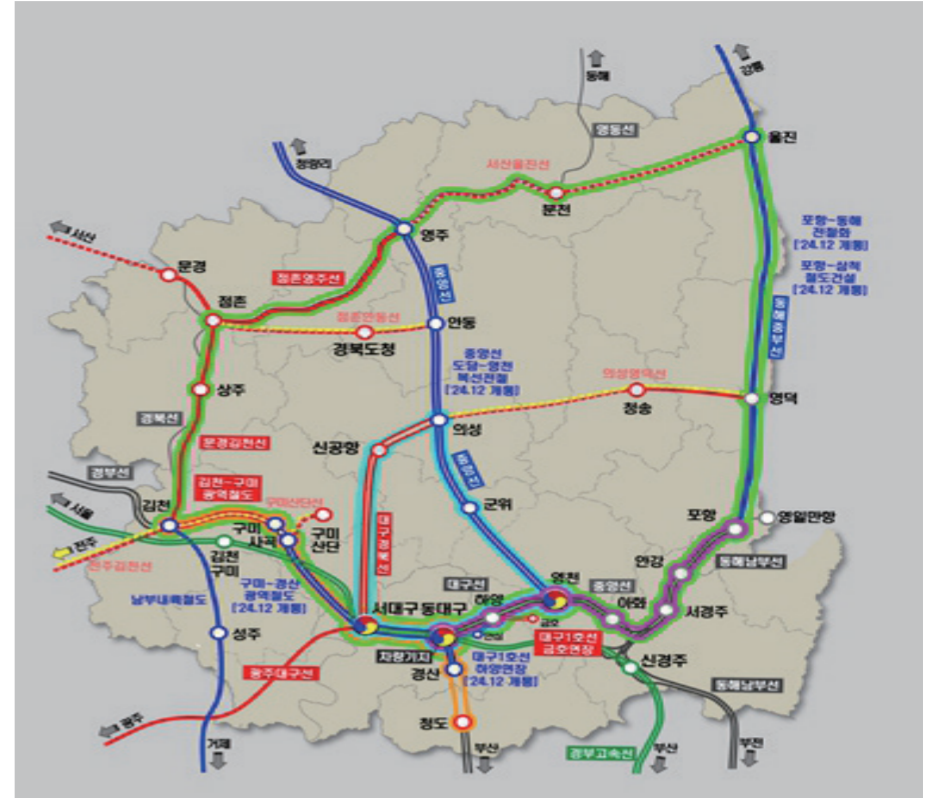
아울러, 경북도 철도정책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경-김천 철도(30억 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2,377억 원)는 이번 국비 예산 확보로 기본 및 실시시설계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6년 사업 착공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한편,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경북 도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대하여 지방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뉴거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 '지방소멸 시대'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철도 사회간접자본(SOC)분야 국비예산을 대거 확보하여 철도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경북도의 신성장을 이끌 철도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강추위 대비 한파쉼터·제설함 긴급 점검 완료

도, 북극 한파에 대비하여 12일부터 7일간 한파·대설 시설물 긴급 점검 실시. 자율방재단 소속 주민이 직접 동네에 설치된 한파쉼터와 제설함 긴급 점검 시설 방문시 수도 계량기 점검, 화재감지기 점검,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실시. 한파 특별시 취약계층이나 일시대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응급대피소 43개소 가동

경기도가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31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800여 명과 자체적인 한파·대설 시설물 긴급 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재난 대비 태세

를 재확인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제설함 2천200여 개, 한파쉼터 950여 개소다. 도는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한파쉼터와 제설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하고 겨울철 재난에 대비했지만 올해 전국적으로 잦은 눈과 추위로 제설함 제설제가 조기에 떨어지거나 한파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긴급 재정비를 추

진했다.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제설함 쓰레기 청소와 제설제 보충, 한파 쉼터 난방기 가동 여부 확인, 계량기 등파 여부 확인, 시설내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지기 점검, 겨울철 재난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이다.

한편 도는 한파 특별시 취약계층 대피와 정전 등으로 긴급대피가 필요한 상황 등을 대비해 도내 43개소에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설치했다. 응급대피소는 야간, 주말·휴일에 외부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한파쉼터, 공공기

관 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극한 한파 등 자연 재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대설·한파 대비 시설 긴급 점검을 추진하고 한파 특별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대피소도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부문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 재난 대처 활동을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속 지원해 재난 사각지대 없는 재난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전남도,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안) 구체화 총력

시군과 전략회의...특화산업 연계 인재 양성 방안 등 논의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남형 교육 발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 준비 시군 담당 과장과 23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교육발전특구' 공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군별 발전전략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방안 등 전남의 특성

을 반영한 특구 공모 주요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유보 통합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자립형공립고, 특성화고와 대학 연계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의 교육발전특구 모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

업, 글로벌 대학과의 협업 등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시군, 지역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을 통해 지역협력체를 구성,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초·중·고-대학교육을 담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을 담아내는 것이 공모의 성

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와 교육청, 시군, 대학 등 온 행정역량을 결집해 공모에 좋은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오는 2월 9일까지 1차 공모를 거쳐 3월 시범지역이 지정 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동해매일 특별시행사

"아기와 편하게 외출하세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아기를 위해 준비된 택시가 옵니다.

유아차 등 소지해야 할 점이 많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가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합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시, 아기와 편한 외출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 25개 전 자치구 확대

작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만족도 92.2%,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병원·약국(43.3%)

행거야 할 점이 많은 아기와 외출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며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돼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가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에 갈 때 등 외출을 돕고, 양육자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주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다.

6개월 이하 신생아를 위해서는 예약제로 신생아용 카시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저귀, 분유, 담요 등 행거야 할 점이 많은 양육자들의 외출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특히, 작년 시범사업 때

예약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부터는 예약비용을 없앴다.

영아 명수당 지원이므로 쌍둥이라면 2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목표(30,459명)보다 15% 더 많은 약 35,000명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 아기를 키우는 엄마아빠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2023년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는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금천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랑구로 16개 자치구였다.

실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10명 중 9명(92.2%)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친절 및 안전운행(96.5%), 호출 편리성(94.0%), 신청절차 간편(92.7%), 카시트 제공 등 외출 편리성(81.3%) 등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지원금액 확대(80.9%), 지

원대상 확대(59.1%) 등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타고 주로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약국 43.3%, 가족 모임 등 약속 24.5%, 공원 등 나들이 21.4% 등 순이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23일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양육자는 먼저 모바일 앱을 설치,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여 승인한다. 승인 후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택시이용권(포인트 형식)이 지급된다. 포인트를 지급 받은 양육자는 택시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 서울시 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양육자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며 "서울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상북도의회, 2024년 첫 임시회 개회로 의정활동 힘차게 출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 제344회 첫 임시회 개회 5분 자유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회기일정 개시

경상북도의회는 2024년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가 오늘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25일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과 교육감이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며, 신효광 의원(청송)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과수농가 지원책 마련 등 농업정책 방향의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전체 22건으로 민생 관련 조례안 등 21건, 지역 문화예술 공간 인 경북예술

센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며, 또한, 오는 3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천의료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며, 동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의회와 경북도, 경북도교육청이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특히,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경북도에서 결연한 각오로 추진하는 초

저출생 극복과 K-U시티 사업 등 ‘경북형 사업’에 도의회가 적극 협력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미래 먹거리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마련 촉구

부산시 친환경·탄소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관심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1월 24일 열린 제 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로 사용 후 배터리의 생태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기차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그동안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반납 절차,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 원활하지 못한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관심을 가질 때”라며, 특히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부산시의 친환경·탄소중립 도시로 부산시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사용 후 배터리란 성능이 저하되거나 사용이 끝난 배터리로 이러한 배터리들을 폐기하지 않고, 잔존가치 평가를 거쳐

잔존용량과 성능 등을 고려해 재활용, 재사용 또는 재제조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최근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탄소중립 시대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반납 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 삭제로 2021년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반납의 의무가 사라졌으나, 다시 활용하기에는 관련 시설이 미흡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4,794대로 현재까지 30대의 전기차 배터리가 반납되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산시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할 차량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전기차 배

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은 440개지만, 2030년 이후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미래를 대비한 사용 후 배터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부산시가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산업의 육성,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 후 배터리의 생태계 마련을 통해 향후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도시광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김희태/기자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육성 조례안 통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차용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산업기술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경비 지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산학연과 공동 연구 개발 추진, 기술이전 상품화에 노력 등이다.

전기차는 환경 중심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중요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서울에서도 전기차용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약 2만 2천여 대 보급으로 26년까지는 전기차 40만 대 보급이 목표다.

하지만, 보급 목표만 세웠을 뿐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출에 대한 대책 및 방

안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옥 의원은 이에 대한 심각성 경고와 함께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집행부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비례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배터리 육성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옥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며 고가의 금속재가 사용되고 있어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추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지역의 경제발전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까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탄소중립은 국제적 약속이며 우리 사회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며,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의 보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자체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정규현 경남도의원, 링컨하우스마산스쿨학생과 의회 견학 행사 가져

정규현 의원,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현(국민의힘, 창원9)의원이 22일 링컨하우스마산스쿨 학생들과 함께 경상남도의회 견학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링컨하우스마산스쿨 학생 및 교사 약 50여명이 참석해 경상남도의회 의원실과 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견학하고 질의 및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규현 의원은 학생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통해 링컨하우스마산스쿨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교육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어떤 일이든 자

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생들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항상 건강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의 역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견학 행사에는 경상남도의회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부의장도 참석하여 링컨하우스마산스쿨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재현/기자



‘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염원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4일(수)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양 도시 시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모인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양 도시 시의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는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만규 의장과 정무창 의장의 인사말씀, 양 도시 의원들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1999년 달빛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된지 25년만인 지난해 8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예타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뀔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통탄했다.

또한,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소매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을 이끌며, 대·광주광역시의회의 의장은 지난해 4월 지리산휴게소에서 양 도시 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광주

공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며, 달빛철도 예타면제 및 2038 하계야 시간제업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근수/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의 브랜드가치 높이기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 요구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제시 등 홍보 다각화 필요”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1월 23일 2024년 상반기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의 전략적인 홍보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총액 650억 2천만 원 중 전라남도도 22개 시군은 143억 3천만 원을 모금하여 1위를 기록했으며 22개 시군 중 담양 22억 4천만 원, 고흥 12억 2천만 원, 나주 10억 6천만 원, 영광 9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

박원종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에 있어 앞으로 더욱 고향을 사랑하는 애乡심을 높이고 고향의 발전을 함께 한다는 마음을 심어드릴 수 있는 전방위적 홍보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농업이 특화되어 있는 농도로서 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런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초 지방

정부의 기부가 활성화되면 결국 전라남도의 재정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곡성군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라는 지정기부 아이디어를 예로 들어 다양하고 기발한 정책들의 시행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요즘은 홍보매체가 다양성을 넘어 범람하고 있고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브랜드가치가 매겨지는 시대”라며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과 협업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



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임성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키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4년 나이스 사용자 연수 추진 “나이스 활용업무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화 지원”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총 8개 과정(약 380강좌) 구성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2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나이스 사용자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교육 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무영역 교육과정 편성, 성적, 생기부 검토 및 마감 등 ▲행정영역 급여 등 ▲신설 학교 나이스 초기 환경 설정 지원 등 8개 과정 약 380강좌로 구성됐다. 기록원은 학년 초·말 교무업무 처리 시기 적기지원과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변화 안착, 나이스 현장 자문단 인력풀 연계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나이스 사용자 연수 교육 영상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성남 희망대초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문승호 의원, 조속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할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2일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회의실에서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 및 학교 돌봄사업에 대한 희망대초 학부모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태년 국회의원, 문승호 도의원, 이근수 시의원, 성남교육지원청 남진희 교육시설과장·구유숙 지역교육협력과장,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김동진 위원장 등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했다. 희망대초 학부모들은 학교환경에 대해서 “학교시설이 2~30년전 과거보다 더 열악하다”며 “특히 화장실의 경우 청소는커녕 관리조차 되지 않아 위생상 문제가 심각하고, 아직까지도 옛날에 쓰던 화병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그 밖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출된 소화전, 오래된 정수기, 깨진 창문, 벗겨진 페인트 등 관리되지 않은 열악한 학교시설의 문제 해결을 비롯해 학교안전지킴이 확충, 확대된 학교 돌봄사업의 상세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희망대초 학부모들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희망대초 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교육시설과장은 “학교의 여러 시설 문제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

다”며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감안해서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개선사업 등 다양한 시설 개선사업을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학교 내 양변기 비율을 90%로 맞추고 돌출된 소화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수 시의원은 “19년도 이전에는 성남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화성 백미항에서 도내 어업인들과 소통의 장 열어

김정호 대표의원 “원전 오염수 피해 전혀 없어… 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해 정책 반영할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23일 화성 백미항에서 도내 어업인들과 소통의 장을 열고 어업 관련 현안을 체크하는 것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 이해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해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주민들 대다수가 농어업에 의존해 생활하는 백미리는 지난 2008년 젊은 어촌계장이 어촌체험마을 사업을 유치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이다. 갯벌체험과 망둥이 낚시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인기를 끌었고, 해양수

산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수산물 가공공장은 연 25억 원의 매출과 2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인 유치를 공인인 결과, 백미리 전체 어업인 중 무려 30%가 귀어인인 젊은 어촌으로 변신했으며 시행착오 끝에 성공한 새고막 양식은 든든한 소득 원천이 돼주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경기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새고막 선별장과 수산물 가공공장 운영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어업 환경 개선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섰다. 김남성 한국자율관리어업 경기도연합회장은 ▲수산물 축제 개최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지원 등을 요청했고, 김범상/기자

김호연 백미리공동체 위원장은 ▲조개 종패 살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표단은 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경기도 어업인에게 힘이 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백미리의 자생력에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이라며 “성공 사례를 널리 알려 도내 어촌이 활성화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도내 어업인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우려했던 원전 오염수 피해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으로 어업인들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단 오늘과 같은 대화시간을 통해 판로 지원 등 진짜 필요한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안 파악과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 투어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도내 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시·군 교육지원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책 찾기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에서 최우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 + [플러스]’ 공약 대전 최종 당선작 발표에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경자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시,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 정책’을 공약으로 제출했다. 학교복합화 시설이란, 근린생활권에 중심이 되는 학교시설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교공간을 지역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교육 기반의 생활 인프라로 학생, 지역주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 문화시설이다. 정경자 의원은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 내 학교시설을 학교복합화 시설로 설계한다면, 4차산업 혁명 시대이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형 교육시설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난 22년 11월 28일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주제로한 경기



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12월 1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분회의에서 5분자유 발언을 통해 학교복합화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동 주제를 통해 꾸준히 해온 의정활동이 이번 공약 대전을 통해 좋은 정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제3기 신도시 학교복합화 시설이 실제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범상/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형복지

인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

여주시, 대신면민의 목소리를 듣다

대신면에서 2024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 추진

지난 1월 18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화의 장인 '2024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가 여주시 대신면에서 개최됐다. 본 대화에는 각 기관단체장과 대신면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하여 장흥기 대신면장, 정병관 여주시의회위원장, 김규창, 서광범 경기도의원 외 여주시의원들과 여주시 간부공무원들이 배석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여주시 정책 추진 현황 ▲지난 건의사항 추진 현황 ▲2024년 여주시 정책 사업 설명 및 추진 방향 ▲대신면 지역발전을 위한 축제 예산 지원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당남리섬 경관 조성

▲하천기본계획 일반보전지구 지정 관련 적극 대응 ▲대신면 무촌리 지방상수도 보급 관련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갔다.

이번 대화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가운데 이충우 여주시장은 "각종 제안과 건의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흥기 대신면장은 "오늘 대화 때 나온 의견 외에도 여주시와 대신면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로 국무총리 표창

여성가족부, '2023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2017년 이어 두 번째 국무총리 표창

수원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23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을 했고, 수원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했다. 수원시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 이야기'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이야기'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동행정복지센터, 마을 주민 등이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을 주제로 지역주민과 인터뷰하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책이다.

수원시는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를 선도하고 있다.

로스쿨 법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했고,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불법 촬영 점검·우먼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 등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비전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수원'이고, 5대 목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이다.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된 수원시는 이후 여성친화도시로 3차례 지정받았다. 2015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받았고, 2022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수원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전략을 제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시민이 직접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2023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에서 지자체·공무원·민간인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며 3관왕을 달성했고,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도 A등급을 받으며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이천시청 배드민턴팀, 관내 초·중고 배드민턴팀과 함께 동계합동 전지훈련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새해를 맞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동계합동 전지훈련을 떠났다. 특히 올해 동계합동 전지훈련은 이천시청 배드민턴부와 이천시 관내 초·중·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함께 하는 첫 동계합동 전지훈련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이천시청 배드민턴팀과 안홍초·이천중·제일고 배드민턴팀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기술력과 팀워크 향상을 도모하고 2024년 대회를 대비한다.

이천시청 배드민턴팀은 평소에도 관내 초·중·고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배드민턴 클럽에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지역사회 인재 양성과 배드민턴 종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동훈련을 통하여 이천시청 배드민턴팀 선수들이 자라나는 배드민턴 유망주들에게 선배 선수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멘토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종배 감독(이천시청)은 "동계합동 전지훈련을 통해 이천시청 배드민턴팀 선수들은 체력과 전술면에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며,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이번 합동훈련이 선배들의 노하우와 기술을 습득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천시청 배드민턴팀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동계합동 전지훈련을 통해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올해 있을 대회에 참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지역 특산물 '청경채 김치' 선보인다

경기도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사업 대상지 선정...올 9월 시민페스타서 공개

용인특례시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 특산물인 청경채를 활용해 이색 김치들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지역축제 연계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사업의 대상지로 시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확보한 5000만원을 투입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맛의 청경채 김치 레시피를 발굴한다.

청경채는 사계절 내내 생산돼 쉽게 구할 수 있고 특유의 아삭한 식감으로 김치의 새로운 맛을 내는 이색 재료로 손색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오는 9월 예정된 '용인시민페스타'에서 청경채 김치 경연대회, 청경채 김치 담그기, 청경채 김치와 수육 시식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청경채 김치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경채의 대표 산지인 용인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참신한 레시피를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공모에 적극 참여해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민페스타는 용인시민의 날 축제와 사이버과학축제,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110만 용인시민의 화합의 장이다. 지난해 행사엔 4만여명의 시민이 찾았다.

지난해 용인에서는 169농가가 169ha에서 1만2797톤의 청경채를 생산했다.

김범상/기자

는 행사를 통해 청경채 김치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경채의 대표 산지인 용인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참신한 레시피를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공모에 적극 참여해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민페스타는 용인시민의 날 축제와 사이버과학축제,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110만 용인시민의 화합의 장이다. 지난해 행사엔 4만여명의 시민이 찾았다.

지난해 용인에서는 169농가가 169ha에서 1만2797톤의 청경채를 생산했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고양교육지원청, 대학, 기업체 모여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총력

고양특례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22일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업무협의 간담회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시 평생교육과 ▲고양교육청 초등·중등교육과, 지역교육협력과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관내 기업 지역협력체가 적극 참여하여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교육(인재양성)모델 발굴을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경기 북부 유일한 특례시이지만 각종 중점규제(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교육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발

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지역협력체 간담회를 토대로 지역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고양시민의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메디치네트'(MEDICI EFFECT+NETWORK: 서로 다른 분야가 연결되고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의미) 선언에 이어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고양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신흥로데오거리 142m 간판개선 사업 완료 '쾌적'

난립한 211개 간판→67개로 정리, 시비 포함 3억원 투입

성남시는 수정구 산성대로 신흥로데오거리 먹자골목 일대 142m 구간의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해 이 일대가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흥로데오거리 간판 개선은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2022년 7월 선정되면서 추진돼 최근 1년 6개월간 3억원(시비 50% 포함)이 투입됐다.

시는 해당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2022.11)하고, 주민협의체와 협력해 24개 건물, 56개 업소에 설치된 기존 211개 노후 간판을 철거했다.

무질서하게 난립 설치됐던 간판은 67개로 일제 정리됐다.

시는 업소당 1개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곡각 지점에 있는 업소의 경우만 간판 2개 설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각 점포 간판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새 간판 기본 디자인과 설계는 상가 소유주, 점포주들과 협의해 이뤄졌다. 신흥로데오거리 먹자골목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간판 크기와 글자체, 색깔 등에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줬다.

이와 함께 간판에 업소별 주력 상품을 그림문자로 디자인해 특성을 살렸다.

시 관계자는 "신흥로데오거리는 노후화된 건축물로 분위기가 침체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었다"면서 "간

판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돼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체결



광주시는 23일 서울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전, 돌봄, 여성 역량 강화가 실현되는 도시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체결한 이번 협약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양기관이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사업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가 앞으로 여성친화 선도 도시로 성장하며 시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전 시민이 혜택을 고루 누리고 변화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더 살기 좋은 화성! 100만 시민과의 만남 추진

정명근 화성시장, 23일 남양읍을 시작으로 2월 7일까지 29개 읍면동 방문

정명근 화성시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화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정 시장은 23일 남양읍을 방문하며 '더 살기 좋은 화성! 시민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다음달 7일까지 29개 전체 읍면동을 순회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정 시장은 100만 도시 원년을 맞이한 화성시의 시정비전 및 방향과 각 읍면동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 등 시민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방문 일정은 ▲23일 남양읍·새솔동·비봉면 ▲24일 마도면·송산면·서신면 ▲25일 팔탄면·장안면·우정읍 ▲26일 정남면·양감면·향남읍 ▲30일 동탄6동·동탄4동·동탄5동 ▲31일 동탄8동·동탄7동·동탄9동 ▲2월 1일 병점1동·병점2동·진안동·반월동 ▲2일 동탄3동·동탄1동·동탄2동 ▲6일 화산동·기배동·봉담읍 ▲7일 매송면 순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022년 '이제는 화성시대, 희망 화성 첫걸음'



이라는 주제로 28개 읍면동을 찾아 시민과 소통하며 민선8기를 시작했다"며 "이번 시민과의 만남은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민과의 만남은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으며 ▲더 즐거운 도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도시 ▲소통의 가치를 실천하는 도시 ▲100만에서 특례시로 이어지는 화성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위례↔잠실역 31번 버스 긴급 현장점검

22일 오전 7시 30분 위례신도시서 31번 버스 탑승해 혼잡도 및 배차간격 점검

이현재 하남시장이 22일 출퇴근 시간이면 '콩나물시루' 현상이 나타난다고 민원이 제기된 31번 버스(하남 위례↔잠실역)를 출근 시간에 직접 탑승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하려는 조치로, 이 시장은 긴급점검을 통해 확인된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14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위례동에서 31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매일 콩나물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다', '미사3동에서 강일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적어 불편하다' 등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7시경 위례신도시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31번 노선을 긴급 점검하고자 플로리체 위례 정류장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버스정류장 운영의자, 한파대피소 등 시민 편의시설 등을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31번 버스의 배차간격 및 혼잡도 현상을 파악하기 위

해 현장에서 30분간 탑승현황과 위례01번 버스와 배차 간격을 직접 확인하고, 혼잡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에 31번 버스를 탑승해 서울 장지역까지 이용했다.

이 시장은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혼잡도 및 배차간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청년행복 인턴십' 참여자 모집

취업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대상...1월 26일~2월 2일 접수

안양시가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구직자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년행복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1월 19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취업 취약계층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기준을 두고 있다.

선발 인원은 10명이며,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2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청년행복 인턴십에 선발된 자는 안양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구청·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는 3~10월에 근무하게 되며, 올해 안양시 생활임금(일급 92,400원)을 보장받는다.

지난 2022년 처음 시행된 안양시 청년행복 인턴십은 취업 취약계층 청년



2024년 청년행복인턴십 (기간제근로자) 참여자 모집

- ☑ 접수기간: 2024. 01. 26.(금)~02. 02.(금)
- ☑ 근무기간: 2024. 03. 04.(월)~10. 31.(목)
-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 roads0far00@korea.kr
- ☑ 관련문의: 고용노동과 일자리지원팀 / 031-8045-2362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행정 및 복지 분야의 일자리 경험과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행정 및 복지 분야에 깊이 있는 참여가 가능한 부서 근무 경험을

제공해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이번에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 (054-679-6542)

싱가포르서 전남 관광상품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8만명 방문 '아트박스 애비뉴'서 전남도 전시관 운영

전라남도도와 전남도관광재단이 육성한 관광창업자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상품 10종이 싱가포르의 '아트박스 애비뉴 2024(Artbox Avenue 2024)'를 통해 전 세계에 케이(K)-전남 관광콘텐츠의 위상을 높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26일부터 3일간 싱가포르 엑스포홀(Expo Hall)에서 열리는 '아트박스 애비뉴 2024'는 매년 전 세계 유명 로컬 관광상품을 전시하는 플리마켓 행사다. 최대 4개 나라 300여 업체가 참여하고 평균 8만 명이 방문한다.

전남 관광창업자와 주민사업체가 생산한 관광상품인 미식먹거리와 관광기념품 등 9개 업체 10종이 이번 행사에서 해외 첫 선을 보인다. 해외 예술가, 기획자가 만든 우수 예술작품 및 수공예품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가 확정된 상품은 지난해 전남관광재단이 전 세계 로컬 상품 플리마켓

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하는 전문 기획사 상품기획(MD)를 초빙해 '지역 관광상품 선발 품평회'를 통해 선발됐다.

선발 상품은 고흥 특산물인 유자를 모티브로 한 유자 모양 캔들, 목포 근대역사문화관과 목포의 대표 (시그처) 관광자원을 미식 스토리화한 '목포가오란다', 구례 특산물 산수유를 활용한 미식 상품 '산수유 양갱' 등 전남의 특화 관광자원을 상품화한 제품이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케이-컬처 관심이 높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전남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 참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현지 소매판입점 및 팝업스토어 기획 등 전남 관광상품의 해외 진출을 추진해 전남의 매력을 더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함평군, '2024 함평군 생활체육 어린이 스키교실' 성료



전남 함평군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2024 함평군 생활체육 어린이 스키교실'을 개최했다.

함평군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스키교실은 겨울철 대표 레저스포츠인 스키를 통해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함평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들은 기초 동작에서부터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배우고, 초급과정에서 마친 학생들은 중급과정으로 참여하는 등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함평군은 이번 스키교실 강좌에 참가 학생 1명당 15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복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스포츠 활동이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남원시, TV조선 K-브랜드 어워즈『문화관광분야』대표 도시 선정 쾌거!

남원시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2024 K-브랜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K-Brand, K-도시 문화관광분야 대표 도시로 선정돼 최경식 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브랜드 어워즈』는 TV조선이 한국 대표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콘텐츠, 기업, 기관 브랜드에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賞)이다. K-Brand, K-Contents 2개 부문 각 8개 분야 중 1차 서류심사, 2차 국민투표, 3차 심사위원단 평가 과정을 거쳐, 남원시는 『K-Brand 부문 K-도시(지자체)』 "문화관광분야" 대표 도시로 당당히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23년 남원의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은 어느 해 보다 빛났다. 100년을 내다보고 있는 대표적인 봄 축제 춘향제는 지난해 93회를 맞이하면서 40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제31회 흥부제, 남원문화재야행, K-명승 달빛유취야간관람, 남원국제도예캠프 등 5대 가을 축제를 동시에 집약 개최, 시내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30만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축제의 연이은 성과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또한 남원의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 1호 지정은 남원의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의 브랜드화로 이어져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중 개최된 체육대회 열기도 문화관광도시 남원을 뜨겁게 달구었다.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4개, 시장대회 23개, 장애인체육대회 4개 등 한 해 총 54개 대회를 개최하는 저력을 발휘한 남원시는 선수 및 관계자들만의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동호인·관람객들까지 함께 즐기는 지역 문화·관광 상품으로 연계 발전시킨 바 있다.

더 나아가 남원시는 민선 8기 1,300년의 유구한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K-명승의 대표 주자 광한루원의 도심권 관광 동선을 합파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통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선진 사례를 경험하고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하고 도전한 결과, 국내 최초 세계드론제전과 남원의 특색있는 가을 축제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고, '문화관광도시'라는 K-브랜드 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최근 도시브랜드 최초로 지역 출신 예술가인 김병중 화백의 작품 화향산수를 모티브로 문화예술과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피어남을 표현하는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함께 문화관광도시로 한층 더 피어날 2024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모두 즐기고 체험하고 머무르고 싶은 남원 관광 1천만 시대를 향한 남원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나주목 관아 복원 속도전... 동헌(東軒) 발굴조사 초입기

6월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후 발굴조사 착수

전라남도 나주시가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이자 호남의 중심지였던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나주목 관아 복원에 속도를 낸다.

청사 이전과 문화재 구역 지정할 절차를 통해 복원을 위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본격 시행하고 나주목 관아 핵심 건축물로 꼽히는 '나주목 동헌' 복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가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나주읍성 내 금성관(객사), 목사내아(나주목사 사택), 향청(지방수령 자문·보좌기구), 향교(조선시대 교육기관) 등을 아우르는 지방행정기관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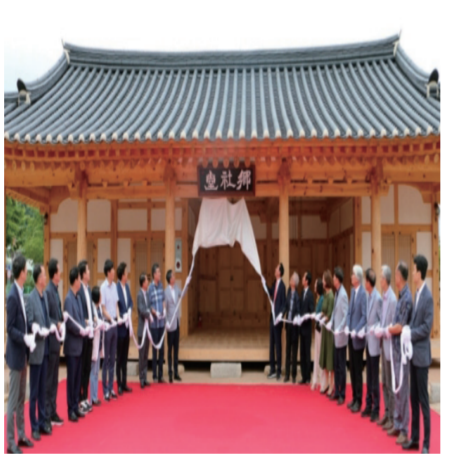
전통 한옥 건축미를 간직하고 있고 도심 중앙에 위치해 복원을 통한 도심경관의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려와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나주목의 위상과 역사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복원을 추진하는 나주목 동헌(東軒)은 목사내아, 정수루를 포함해 나주목 관아를 구성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목사가 공무를 보던 장소이며 '제금헌'(製錦軒)이라고도 불린다.

동헌터 발굴조사는 지난 2012년 5월 금계매일시장 철거를 시작으로 추진돼왔다. 올해 금남동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복원을 위한 정수루 남측 임시주차장, 야외공연장 철거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발굴 부지면적은 금남동 행정복지센터와 야외공연장, 옛 중앙교회, 정수루 남측 임시주차장 등 총 69필지, 1만6366㎡ 규모



모다.

금남동 청사는 오는 6월 옛 로컬푸드 직매장 금남점으로 임시 이전하고 향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축 부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나주목 관아 복원은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역사문화생태관광 활성화와 500만 나주관광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나주시는 앞서 조선시대 지방공공기관자 중양 관리, 외국 사신들이 묵었던 객사(客舍)인 금성관 마하루를 2002년에 복원한데 이어 2005년 서익헌, 2007년 동익헌, 2018년 연못 복원을 완료했다.

이어 조선시대 지방 읍치시설로 지방수령을 자문, 보좌하는 자치기구 역할을 했던 나주목 향청도 복원해 현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호남의 웅대 나주의 찬란했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금남동 청사 임시 이전과 국가사적 발굴조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복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순천시 청년창업 문 '활짝'...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최대 3년간 각종 교육 및 사무실 임대료 무상 지원

순천시는 사무공간이 필요한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사업가와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연당(순천시 창업지원센터) 내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을 오는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의 문을 연다'라는 의미를 지닌 '창업연당'의 공유오피스는 지난해 개관한 풍덕동 소재 생태비즈니스센터 내에 있으며, 현재 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창업연당에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 사업 의지를 가진 청년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임대료 무료)을 비롯한 다양한 엑셀러

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초기 창업자(기업) 및 예비 창업자가 대상이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이 선정된다.

신청은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은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 성공을 이루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정보 제공과 더불어 투자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순천시 창업연당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창심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4. 1. 22(월) - 2. 16.(금)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순천에 주소지가 둔 대표자가 청년(18세-45세)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wkwndht@korea.kr
- 지원사항** 사무공간 무상 지원, 전문 창업 상담가 멘토링 및 초청 강의, 회의실 대관, 창업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워크숍 진행
- 소재지** 순천시 역전관광3길 54, 생태비즈니스센터 2층
- 입주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 문의처** 061-749-576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교육 실시

반려동물 키우기 예절 안내, 명절 연휴 유기 방지



강진군은 지난 23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교육을 군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들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처음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의 주 내용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한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다. 특히,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 공격성 있는 반려견 및 맹견의 입마개 착용 등 산책 시 의무사항과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의 목줄 착용 및 외부로 벗어나지 않도록 대문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홍보물 각 가정 배부

와 매주 2회 이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이 반려동물 문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앞으로도 강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교육'을 2월 말까지 전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대면으로 홍보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국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공존의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윤호/기자

전북도내 대·중소기업 신·증설 투자잇따라

도내 기업들이 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 위해 마중물 역할 기대

도내 대기업인 LS엠트론을 비롯해 세아제강, 지엘켄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영철 LS엠트론 특수사업부부장, 홍정덕 세아제강 공장장, 이원민 지엘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LS엠트론은 테크노2밸리산단에 계도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세아제강과 지엘켄은 군산 국가산단 내에 있는 여유부지에 각각 강관과 천연 합성물 제조를 위한 공장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3개사가 총 1,061억원을 투자해 107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오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이미 도내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3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대기업이다.

민선 8기 들어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도내 기업들이 성장 속도에 맞춰 추가 투자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지



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LS엠트론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늘어가는 '방위산업'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완주공장에서 방산 분야만 분리해 계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아제강은 지난 '18년 설립된 매출액 1조원의 대기업으로 '09년 군산공장을 최초 준공했으며 군산공장에서 생

산되는 강관을 국내 주요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다.

지엘켄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22년부터 군산공장을 가동 중으로 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천연화합물을 생산 중이다.

특히 최근 이차전지 기업이 새만금에 대거 투자됨에 따라 지엘켄의 군산공장 증설이 필요하게 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민선8기 1년반동안 11조원이 넘는 기업유치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유치는 항상 초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내에 소재한 항토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4년 군산시 첫 투자협약에 오랜기간 군산시와 함께 해 온 철강대표 기업인 세아제강과 이차전지용 바인더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한 지엘켄이 우리시에 재투자 해주셔서 흐뭇하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LS엠트론의 완주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며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기업유치이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으로 투자기업과 완주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도의 기업의 투자는 물론 도내 기업이 더 성장해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산업 및 기업동향을 공유하며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남출/기자

신안군, 청소행정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 힘써



신안군은 지난 19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청소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군, 읍면, 사업소 등에서 청소행정실무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26명이 참여했으며, 2023년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폐기물 정책의 주요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차질 없는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현안 사업 설명과 매립·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관리,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 2023년 폐기물관리 평가 강령이었다.

신안군은 지난 2023년, 연속도수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와 폐농약류 무상

처리제도를 도입하고, '농부의 품격'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주민공감 청소행정 실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에는 재활용용 향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최적 운영 및 성능개선 사업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청소행정정은 지역 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해양치유 완도', 브랜드 어워즈에서 K-도시 부문 수상

브랜드 이미지 독창성, 브랜드 경영 비전과 전략에서 높이 평가 받아

완도군은 1월 2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2024 K-브랜드 어워즈'의 'K-도시(해양치유 도시)' 부문에서 기관상을 수상했다.

TV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K-브랜드 어워즈'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브랜드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콘텐츠 및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완도군은 'K-도시' 부문에서 기관상을 수상했으며, '해양치유 완도(Marine Healing Wando)' 브랜드

이미지의 독창성, 브랜드 경영 비전과 전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치유 완도(Marine Healing Wando)' 브랜드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면서 해양치유산업의 서막이 열림에 따라 우리나라 치유산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해양치유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이다.

완도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 중이며, 지난 2017년 해양치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치유 완도' 브랜드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약산 해안치유의 숲, 청산 해양치유공원 등 공공시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딸라소풀과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실 등 총 16개의 치유 요법 시설을 갖췄으며, 개관 두 달여 만에 1만여 명이 방문했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해양치유가 더욱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인구 유입과 농

수축산업 동반성장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의 브랜드인 '해양치유 완도'가 우리나라 치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로 입증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덧붙여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완도만의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군이 웰니스 해양관광 도시로 도약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영율/기자



목포시, 시의회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에 유감... 재추진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장기화 우려

목포시가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시의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계약 동의안에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보장 및 고용 승계, 시내버스 비상 운영연장, 노선권 및 중고버스·CNG 충전소 매입, 차고지와 운영 인프라의 임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노선개편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학부모 및 노인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통해 노선권 공영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속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재정심의 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자문절차를 거쳐 시의 대중교통 정책 방침을 최종 결정 후 시의회에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특히, 민영 노선권의 공영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시민공론화위원회도 함께 참여하는 등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시의회, 시민공론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정평가 평균액 210억 3천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시는 노선권 매입액 조율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 회사의 비상경영체제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 구조로 매입

액인 210억 3천만원이 태원·유진 법인의 부채총액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자 퇴직금(143억원), 금융권 부채(73억원) 등 외부 차입 부채를 상환하기에 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제조건인 노선권 매입 등이 담겨있는 계약 동의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시민 소통 부족 등의 의견으로 계약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했다.

목포시는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여,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로부터 시의원 및 법률전문가를 추천받아 협상단을 구성 추진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2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안전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

템 구축을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하여 버스운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지연됨에 따라, 그 기간동안 버스 운행중단 재현 등 시민들의 불안감 고조 및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계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계속해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필수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의 안정화를 위해 시내버스 전담부서인 대중교통과를 신설했고 노선개편, 신규 사업자 모집, 운영체계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7월 가동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진도군, 주민 밀착 소통 위한 '2024년 군민과의 대화' 개최

오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7개 읍면 순차적 진행

진도군이 오는 25일부터 '2024년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진도'라는 주제로 7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읍면 순회 순서는 ▲25일 10시 진도읍, 14시 군내면 ▲26일 10시 고군면, 14시 의신면 ▲29일 10시 임회면, 14시 지산면 ▲30일 10시 조도면 등이다.

군은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나온 154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분기별로 주민 건의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난해 군민과 함께 이룬 군정 핵심 성과와 2024년 군정 비전, 주요 군정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해 주민 생활 불편사항과 분야별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군민과의 대화로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군민의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을 위해 이번 군민과의 대화 개최로 더 가까이에서 눈높이를 맞추며 군민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고 동행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강화하겠다"며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보성군, 주민 참여형 '보성 나무 사랑의 날' 지정 운영

생활권 나무 퇴비 주기, 전지, 잡관목 제거 등 추진

보성군은 매년 3월, 10월 넷째 주 금요일을 '보성 나무 사랑의 날'로 지정해 주민 참여형 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성 나무 사랑의 날'은 주민생활권 및 공원 등에 식재한 수목과 보성600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등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나무 가꾸기 작업을 추진하는 날이다.

이날은 정원전문가 등 나무 관리 전문인력 총 97명을 마을별로 투입하며 전문가의 기술 지도하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퇴비 주기, 수형조절,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잡관목 제거, 물 주기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형 나무 가꾸기 사업 대상지는 오는 2월 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산입팀을 통해 신청받는다.

보성군은 2월 23일부터 주민들에게 기초 작업 요령을 알려준 후 마을별 사업을 시작해 수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군민께서 생활권과 보성600 사업으로 식재한 수목의 관리

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라며 "보성 나무 사랑의 날을 지정해 '주민 참여형 나무 가꾸기' 사업과 '보성600'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600'사업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역 산업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그 가치와 효과를 인정받아 2021년부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최원영/기자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정식 운영

수영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찜질방 다목적 프로그램 등 1월 25일 신청 접수 맑은누리파크, 도청신도시 새로운 주민친화시설 탄생

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동시 풍천면 맑은누리파크 부지 내 건립된 '주민편익시설'은 총사업비 191억 원을 투입 2021년 11월에 착공, 2023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맑은누리파크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산되는 스팀을 공급하여 운영하는 친환경 시설이다.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은 경북도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시범 운영 동안의 개선 사항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주민편익시설은 맑은누리파크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한 시설로 수영장 (25m×6레인), 스크린골



프연습장, 찜질방,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어린이놀이방, 수영장 유아풀 체형과 스크린골프, 줌바댄스, 필라테스, 찜질방, 수영장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도청신도시가 포함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지역 주민들은 고시

된 이용료의 30% 감면된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 및 골프연습장 1개월 회원은 1월 25일 14시부터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일일 이용객은 과밀·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별·이용 시간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된다. 기타 운영 정보, 이용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ndongsisu.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윤경희 군수, "체계적인 주요 정책계획수립, 세밀히 군민을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군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

청송군은 지난 24일(수)부터 오는 26일(금)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3년 차에 진입하는 해인만큼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사업의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청송군은 2024년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청송'을 위해 재해 예방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공간 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재해예방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과수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과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 '달빛이 내려앉은 달기약수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공간 정비사업인 '현서·안덕면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청송읍·진보면 도시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등이 추진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세밀하게 군민을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반여·엄궁농산물도매시장, 설 명절 휴업일 조정... 2월 4일 정상 영업!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편의 위해 반여·엄궁농산물도매시장, 2.4. 정상영업, 2.13. 대체휴업, 두 도매시장은 설 정기휴업일 포함해 2.10~13. 휴업 한편, 2.4~13.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2.4~12. 도매시장 외곽 서문·동문 도로변 주차도 한시적으로 허용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관리사업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반여·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정기휴업일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반여·엄궁 농산물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은 매주 일요일, 1월 1~2일, 7월

마지막 주 토요일(단, 엄궁도매시장은 8월 첫째 주 토요일), 설날·추석부터 3일간이다.

두 도매시장은 연휴 전주인 2월 4일 정상 영업하며, 대신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13일 대체 휴업한다. 정기휴업일 조정에 따라, 두 도매시장은 설 정

기휴업일을 포함해 설 당일인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휴업한다.

한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설 명절 시장 활성화와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을 대비해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의 협조를 받아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도매시장 외곽 서문과 동문 도로변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김현호 관리사업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매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방문고객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설 연휴 대비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화재안전 위험요인 조기 발견·개선 및 안전의식 고취 홍보



통영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대비해 명절기간 대중들이 많이 찾게 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1월 한 달 동안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통영시 설 연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귀성객, 관광객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과 명절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통영시 시민안전과를

주축으로 통영소방서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참여해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분야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23일 통영시 조형호 부시장장은 통영시외버스터미널 합동 점검에서 "최근 잇따른 화재, 안전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에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한 통영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영양군 우리음식연구회, 식품영양 및 위생교육 실시



영양군은 지난 24일, 영양군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식품영양 및 위생교육을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다.

영양군 우리음식연구회는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관내 여성 학습단체로 영양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지역 향토 음식과 특화음식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 등의 혜택을 나눔행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교육과 식품별 영양소, 식재료별 궁합을 통해 재료별 특성을 제대로 알고 조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이 되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한 이○○(51세, 여)는 "우리음식연구회에 올해 처음 가입해서 첫 교육인데 식품위생과 함께 재료별 영양과 궁합도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으며 잘 지키지 못하는 위생 부분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용한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오늘 식품위생 교육을 받고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다양한 농민자원을 활용한 식문화 계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2024년 상주시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34개 사업, 어르신 3,389명 참여

상주시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34개 사업별로 3,389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1월 22일 본격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 어르신들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매장 등 전문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등

3가지 유형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로는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에서 경로당 깔고미 사업을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버클린 환경개선봉사사업을 상주시니어클럽에서 스크린교동지원봉사 등 32개 사업을 추진한다.

상주시 노인장애인지원과 박종욱 과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의성군,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 대폭 확대

김주수 의성군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출연과 개선방안 모색,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겠다"

의성군은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4년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성군은 지난해 출연금 2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3억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 3%를 의성군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의성군은 기존의 보증한도액을 업체

당 최대 2,000만원에서 2023년말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로 대폭 상향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관내 금융기관과 저금리 협약을 맺어 상한 금리를 CD금리(91일) + 2%로 하였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과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주요 농정사업 공유 회의 가져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3개과 14개 팀에 대한 2024년 주요 농정사업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금년도 경쟁력 있는 미래 농산업을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선도도시 군위로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다.

군위군 주요농정 사업은 약 150가지로 각 팀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주요농정 지침서로 만들어 함께 내용을 공유하며, 직원들 간에 사업의 협력 및 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위군 주요농정 지침서는 1월 안에 읍면 농정 관련 담당자와도 공유하며, 군위군민들에게 농정사업에 대해 빈틈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이 청령을 실천하고, 친절에 관한 미흡한 분야를 개선해 민원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과 청령 결의도 다졌다.

기본적인 전화 및 방문 응대, 서비스 마인드 고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민원응대 경험이 적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오랜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직

원들에게도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학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김동현/기자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남해군이 코로나 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6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 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 업종과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융자 신청은 오는 1월2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하고 보증심사 후 협약 금융기관(11개소)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 대출을 받으면 남해군에서 2년간 연 2.5%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신

용보증수수료 6개월분도 군에서 지원해준다.

이용준/기자



정부와 경북도, 해상안전사고 ZERO화 실현 콜라보!

정부개각 편승, 해수부 장관,차관 접견, 해상 안전사고 대응 협력과 2025년 국비 확보, 현안사항 건의 등 적극적인 대처 나서

경북북도 이달의 경제부지사는 지난 22일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4년 해양안전 점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2025년 국비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정부개각에 맞춰 해양수산분야 과제 해결에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안수산부의 2024년 해안안전정책의 방향 및 겨울철 해양사고 중점관리에 대한 협력과, 경북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AI 기반의 R&D기술개발 지원 등 해상안전망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간 경북 어선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91건에서 2023년 19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관손상과 부유물 감김이 주요 사고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 전복충돌 등 6대 해양사

고는 5년간 153건으로 26.1%를 차지해 매년 5 ~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6대 공모과제에 선정(3년간 18억 원)되어 AI 기반 해상위기상황 자동반응형 개인 및 선박 조난신고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어업현장 실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2025년 해양수산 역점정책으로 추진하는, ▲포항(월포), 영덕(장사) 해수욕장을 동해안 대표 서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동해안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290억 원)' ▲내수면 지역 신성장 모델 발굴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수면 낚시복합타운 조성(180억 원)' ▲수족관에 전시된 고래류의 동물복지 개선과 자연방류 시 환경적응을 위한

'고래 바다쉼터 조성(300억원)' 등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경북 연안 '5,500m 이내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 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도 제안했다.

이달의 경제부지사는 "열악한 조업현장에 보다 안전한 해상안전망 확충과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통해 동해안이 생산&생명&생활의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배진태 봉화부군수, 가축방역 현장 점검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계란환적장 방문하여 빈틈없는 방역 지시

배진태 봉화부군수는 지난 23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한 엄중한 상황에서 군 가축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배진태 부군수는 봉화를 적덕리 소재 군 거점소독시설과 도촌리의 통제초소와 계란환적장을 방문해 축산차량의 소독실태를 살펴보고,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통제초소 운영과 계란 환적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동절기 특별기간 중 지난 9일 의성군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29건의 AI가 발생하고, 16일과 18일에는 영덕군과 파주시의 양돈농장에서 ASF

가 잇달아 발생해 군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시기에 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군에서는 23년~24년 동절기 특별기간이 시작되는 작년 10월 1일부터 군 계란환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과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 이동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진태 부군수는 "축산농가는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군에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AI 및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숲과 함께 행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구현

2024년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해 195억원 투입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산림 보전에 역점 김학동 군수,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산림경제, 산림복지 등 적극적 산림정책 실현, 군민·임업인 모두 행복한 한해 위해 노력"

예천군은 올해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는 군민 안전을 위한 산림복원 분야에 최우선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림복원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등 실질성 있는 정책으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집중 관리지역을 선제적으로 방제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819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79ha 규모의 조림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 생산 기반 및 유통 기반 조성 ▲백두대간 소득지원 ▲산림소득 및 임산물 소

득증대지원 ▲산림작물생산 단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생산자 단체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임산물 유통여건 개선사업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임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올해에는 군민들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 산림의 사회문화적 기능 강화에도 노력한다. 서분공원을 정비하고, 남산공원을 예천군 랜드마크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활동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까지 충남 태안부터 경북 울진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의 예천 구간 숲길을 개설하고, 기존 노선을 정비해 증가하는 트레킹 수요를 충족시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낸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산림경제, 산림복지 등 적극적 산림정책 실현을 통

해 군민과 임업인이 모두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주민 여가공간 조성, 조림사업,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불예방, 소나무 재선충사업 등 산림 보호를 통해 소득증진과 산림기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상북도 산림자원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금자/기자



'일상에 행복을 더하다' 직원 후생복지 더하기(Plus) 사업 추진

저연차부터 고연차까지, 전 직원이 체감하는 사업 추진 / 업무 의욕고취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안동시는 직원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2024년 직원 후생복지 사업 총괄 계획 '후생복지 더하기(Plus)'를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생복지 더하기(Plus)사업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든든한 직장 환경 조성' 총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올해부터 초임 보수가 낮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새싹포인트를 신설하고, 자녀 출산 공무원을 위한 출산특별포인트를 첫째 자녀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생일 특별휴가제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대한 장기재직 휴가제가 시행된다.

둘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일-일상 연결고리 지원사업을 통해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가족 휴양을 지

원하고 있다.

셋째, 직원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각종 질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직원과 소통하는 양방향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직원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해 끊임 없이 봉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후생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직원 업무 의욕을 고취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주차난 해소에 '팔 걷어' 붙이다!

공영주차장 9개소 725면 조성 내집주차장갯기·개방주차장 지원도 병행...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 편한 영주" 박남서 영주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영주시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차난이 심각한 시가지에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 358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9개소(725면)를 조성해 늘어가는 주차수요에 대응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영주호텔 인근(가흥동 1654번지) 2199m² 부지에 총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194면을 주차할 수 있는 '가흥신도시 주차타워'(지하 1층, 지상 3층 4단)와 '어린이테마공원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으로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옆(가흥동 1622-1번지)에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주차공간 97면을 조성 완료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영주역 인근(휴천동 321-10번지 일원) 1985m² 부지에 82억 원의 예산으로 12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영주역세권 주차타워'(지상 2층 3단)를 조성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남동산아파트 인근 40면, 휴천동 현대1차 아파트 인근 35면, 가흥신도시 파리바게트 인근 80면, 대영고등학교 인근 90면, 휴천동 대일요리학원 인근 40면 등 을 연말까지 5개소 28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3억 원이 투입된 장수인



애가병원 인근 꽃동산 공영주차장(주차면 29면)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2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 바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 주차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시민들과 단체의 협조를 통한 해결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웃 간 소통의 벽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도 마련하는 '내집주차장갯기 지원사업'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기존 주차장을 가진 단체와 협약해 일정 시간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체 주차공간 확보 및 주변 이웃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조성된 주차장에 차를 대고 5분 정도 걸어서 용무를 보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만이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체계적인 민원관리로 책임행정 확보! 울진군,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건의사항 추진여부, 상황, 계획 등 논의 손병복 울진군수,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울진군은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및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지난 2023년도에 제기된 436개의 주민 건의사항 중 ▲완료 123건(28%),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 116건(27%), 연차사업 122건(28%) 등에 대하여 추진 여부,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손병복 군수는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한 주민에게 개별 통보하고 이장 출무회의 시 널리 홍보하여 동일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통 부재로 불만을 겪지 않도록 확실한 피드백을 주문하였다.

특히, 법률·제도·예산상 제약, 상대성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울진군은 「군민 섬김데이」, 「군수 직통문자」, 「군수에게 바란다」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소통 기반 섬김행

정 실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장문화/기자



영덕시장 재건축사업 시공사 설명회 개최

영덕군은 지난달 28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화제로 소실된 영덕시장의 재건축을 현실화한 데 이어 지난 22일 영덕군 새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이를 구체화했다.

이번 설명회는 영덕시장 재건축사업 시공사가 올해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로, 영덕군 관계자와 영덕군의회,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공사는 본격적인 착공을 앞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소개한 후 영덕시장 재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했으며, 이후 공사 과정 중 우려되는 소음·분진 피해 방지, 침수 예방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종석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은 "단순히 영덕시장 재건축공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영덕시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점이 되는 명품시장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도민 건강 위해 올해 924억원 쓴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공공 필수의료료 위한 과감한 투자로 도민 건강 지켜

경상북도는 도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취약한 의료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총 9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 이번 예산 편성은 섬세하고 혁신적인 공공보건으로 기반 구축으로 건강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4여 년간 지역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과 사망은 중환자 치료 병상과 필수의료료의 절대적 부족과 같은 공공보건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경북도는 여전히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취약한 의료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은 도민들이 중증 혹은 응급상황 발생 시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도권 종합병원을 찾아 해매는 등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된다.

도는 지난해 병상수 대비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 필수 의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의료전달체계의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고 도민이 마음 놓고 찾아가길 수 있는 지방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인근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의사회, 3개 지방의료원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키고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강력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을 이끌기 위한 추진단 운영을 지속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필

수 의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지역 특성과 인구 병원의 차별화된 지방의료원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필수 전문의료진 영입에 24억 원을 투입하며, 지방의료원의 낮은 시설보강과 수술할 수 있는 중환자실, 분만실, 24시간 안심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응급 소아진료실 운영과 함께 건강검진센터 현대화에 296억 원이 사용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전담병원에서 벗어나 도민에게 친근한 역할 수행을 위해 도내 6개 중진료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한다.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영주직접사별병원, 상주직접사별병원)에는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 지원, 감염병 관리 등 필수 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31억을 지원한다.

도내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역량 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임상 실무 교육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7개 종합병원에서 환자 간호, 수술마취 환자 간호 등의 내용으로 받는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25억 원,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6억 원, 신속한 의료 대응을 위한 35개 응급의료기관에 60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

기 운영 35억 원 등 적기가 중요한 응급의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총히 준비한다.

특히, 올해 경상북도 핵심 전략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와 아이 모두 지역에 살고 싶고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24시간 야간·휴일 소아응급실 운영에 15억 원을 쓸 예정이다. 소아응급실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종합병원 4개소(포항성모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안동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사스(SARS)에서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6년에서 4년으로 짧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향후 새로운 팬데믹 조기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도는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법정감염병(89종)과 집단발생이 가능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경북도와 시군에 역학조사관 23명과 전문인력 25명을 배치하고 예비 인력 248명도 양성하며, 탄저, 페스트 등 생물테러의 신속한 대응과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한 대규모 훈련도 한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체계에 전환하고 중증 환자의 신속한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 격리병상 2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감염 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를 위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 예방 접종 지원에 81억 원을 편성하고, 먹는 치료제 공급으로 중증, 사망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 외에도 도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409억 원, 효과적인 결핵 치료·관리에 27.6억 원, 한센인 의료·복지지원에 39억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과 조기발견·치료에 7억 원 등을 편성해 운영한다.

황영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감염병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공공의료료 위해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감염병의 위기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칠곡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칠곡군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인도 등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와 같은 불법 광고물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현수막(대형 4,000원, 소형 2,000원), 벽보, 스티커 등 광고물의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울릉군 독도박물관-상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독도박물관은 상주박물관과 2024년 1월 24일 양 기관은 지역거점 박물관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박물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박물관 교류사업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박물관 주요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및

홍보 협력 ▲박물관 교육사업 상호 추진 ▲학술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의 상호 협력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기관 소장 자료 및 이용에 관한 협력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오는 8월에 상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독도를 주제로 한 공동기획전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두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주의 지역민 및 학생들이 울릉도 및 독도에 방문하여 체험형 현장교육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전시 연계교육의 일환으로 독도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및 특강 운영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조강재/기자



경상북도와 경북연구원은 공무원의 AI활용 능력을 기르고 우수한 창작물 제작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AI활용 우수사례 공유 마당'을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모로 접수된 63편의 창작물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편에 대해 상금을 시상하고 제작자가 직접 작품 제작 의도와 활용한 AI기술을 공유했다.

경상북도 공무원 AI활용 우수사례 공유마당 개최

도·시군·출자출연기관 직원 출품 63편 중 우수작 10편 시상

공모에는 고위직부터 신규직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참여해 추모, 업무소개, 홍보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다.

대상은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정다호 소방장, 우영준 소방사가 제작한 'AI로 복원한 우리의 영웅들'이 선정됐다. 손직한 소방공무원들을 AI기술로 복원해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내용으로 심사위원의 큰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작은 경북연구원 전아리아 연구원이 제작한 '시간을 잇는 경상북도'가 선정됐다. 저출생 극복을 주제로 한 가상의 영화 예고편으로 줄거리부터 등장인물, 영상, 음향까지 AI만으로 제작한 창작물로 높은 완성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사진과 음성을 AI기술과 결합한 신년 연하장(경산시청 정순영, 경북테크노파크 김나은), SNS 짧은 영상 형태의 홍보영상(대변인실 정원, 대변인실 홍미진, 경산시청 정영환), 여행을 기록하는 영상 일기(시아바타)를 활용해 제작한 창작물(예산담당관실 윤희란)도 눈길을 끌었다.

업무와 관련된 창작물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저출산 정책 아이디어를 가상 뉴스 방식으로 제작(여성아동정책관실 정화수)하거나 연수보고를 시아바타를 활용한 영상물로 제작(봉화군청 전재욱)한 작품도 소개됐다.

행사를 주관한 경북연구원 유헌균 원장은 심사 총평에서 "AI를 활용한 창의적 기획력과 활용 능력이 뛰어났다"며

서 "앞으로 경북의 AI활용을 경북연구원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AI콘텐츠를 실물 작품으로 만들어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AI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AI·달빛 그윽한 동해'를 소개하며 "AI가 학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꾸준히 확보하고, 적극 활용해 나아가 글로벌 AI경쟁력을 갖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AI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좋은 도구"라며 "모든 직원이 AI 기술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회의 개최

부산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 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주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관계기관별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20일부터 3주 동안 부산지역에서는 10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시장은 비롯해 부산지방노동청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부산경영자총합회장, 건설협회장, 민간재해예방기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기관별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예방대책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안전을 습관화하는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 ▲안전보건체제로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 있는 역할 이행 등에 대한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감독기관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재정적 지원 확대 ▲현장에서부터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관계기관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점검회의에 이어 시장은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설산업현장을 찾아 노동청, 공단 관계자와 직접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현장이 근로자의 고령화와 유해·위험기계기구 이용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산재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현장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부산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부산지방노동청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오늘(24일) 70여 곳의 산업현장을 방문해 3대 사고 8대 위험요인을중점으로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자재 발주공사장 ▲

20억 원 이하 및 1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 업종 중 유해·위험 기계·기구 또는 크레인 보유 제조·서비스 사업장 등이다.

합동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현지지정을 요구하고, 시정조치가 불만하면 추가로 노동청 처분 등의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시, 노동청,

산업현장 구성원 모두가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대구시, 줄기세포 유래 골다공증 개선 물질 국제학술지 게재

파골세포 분화 억제제 골질환 치료제 개발 가능성 주목

케이메디허브의 '골질환 개선 목적 중간엽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소포체 개발'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Biochemical Genetics'에 게재되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진들은 인간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추출한 세포외소포체가 골다공증 등 골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파골세포의 분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병리지원팀 최주희 연구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이근우 교수팀, 경

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서민수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성과다.

골다공증은 주로 갱년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소실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골질환 치료제 개발에 한발 다가감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질환의 치료 가능성으로 기대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본 기술의 발전은 골질환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소포체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를 지원하여 다양한 치료제 개발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조현일 경산시장’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현장 방문

파쇄사업 현장 방문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24일, 용성면 도덕리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장을 방문해 산물 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전문파쇄단을 격려하고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은 불법소각 행위를 산물로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과 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농가를 대상으

로 부산물 파쇄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과는 지난 11월 사전 신청을 받아 12월 1일 사업을 시작해 2024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각 산물 없는 안전한 행복한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제8대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7대 김용재 도 협의회장 이임 및 제8대 정영주 협의회장 취임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상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주관하고 도, 시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경북도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4년간 시군 협의회회장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도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김용재(64세, 포항) 전임 회장에게 도지사 감사패를 수여했다.

제8대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정영주(53세, 상주) 씨는 앞으로 2년간 경북도 협의회회장을 역임한다.

한편,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2010년을 시작으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도와 시군 단위로 조직화

되어있다. 현재, 약 3,200여 명의 회원들이 체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 곳곳에서 도민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교육 소외 계층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들은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마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민간 자격증인 '마을교육지도사 1·2급'을 취득 후 활동한다.

이들은 찾아가는 동네경로당 대학, 어르신 주산경기대회, 어르신 안전골든벨 등 다양하고 특화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활동 수행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교육지도자 회원들이 도

민의 행복을 넘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

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윤근수/기자



2024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추진

농업기계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단가 일부 반영, 농기계 선택 폭 확장, 가격부담 완화, 수요조사 결과 반영 중형 18, 소형 160 총 178대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

청송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업 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 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5억 8천 만원을 투입하여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2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으로, 소형은 250만원, 중형은 1천만원을 보조한다.

특히, 올해는 1천만원 이하 기종에 100만원을 보조했던 작년과 달리, 농업기계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단가를 일부 반영하여 농기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형 18대, 소형 160대 총 178대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들이 각자가 필요한 농업기계를 지원받음으로써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대형 건축공사장 설맞이 특별 안전점검

시, 구·군 지역건축안전센터 합동점검 실시

대구광역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 건축공사장의 부실 요인 제거,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 대형건축공사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발생 요인 사전 제거와 공사장 주변 차량 및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등 시민 불안 해소를 물론, 다가올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시, 구·군 지역건축안전센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서 적정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 방지망 등의 설치 및 관리상태, 공사장 주변 통행로 자재 적치 등 환경정비 실시 여부와 동절기 화재안전관리 및 한파·강설 대비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1월 24일에는 대구광역시 건축과장과 건축시공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와 건설재해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및 즉시 보안을 요구하고, 기간을 요하는 사항은 임시 안전조치 후 단계별로 해소할 계획이며 중대한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환 대구광역시 건축과장은 "설 연휴 동안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선



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화순군수, 노후 아파트 합동 안전 점검 참여

200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23개 단지 소방·전기·가스 점검 진행

화순군은 최근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발생,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분야를 화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해양에너지, 민간자문단과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최형호 화순소방서장이 현장 안전 점검에 참여하여 직접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

합동 점검반은 아파트별 안전관리자와 함께 소방 펌프실, 수신기 확인, 비

상 발전기 등 전기 시설 확인, 비상구 유도등,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확인, 경량 칸막이 등 화재 대피 공간 확보를 중점 점검했으며,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매뉴얼 및 홍보물 배부하고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함께 추진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지속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야 한다"라며 "군민 여러분들도 아파트 내 흡연 금지, 난방기구 사용 시 주의하기, 대피 공간에 개인물품 비치하지 않기 등 화재 예방수칙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희/기자



경주시,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권 활성화 모색

24일 전통시장 화재 대비 긴급 안전점검 당부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 논의



경주시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낙영 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상인회장, 임원 등 3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성수품 중심의 물가안정 동참 요청과 고공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소식을 전하며 상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시설, 난방시설 등에 대해 철저히 살피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 책임관 점검 등의 물가안정 종합 대책을 설명하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경주페이, 온누리상품권 등의 결제편의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를 비롯해 시장 내 원산지·가격표시, 청결한 위생환경과 친절환 고객응대를 독려했다.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화재재난 지원사업'과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했다.

여기에 △우수제품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60개사) △소상공인 특례보증(4000만원 이내) 및 이차보전(4% 이내 2년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50~80% 환급) 등의 사업을 설명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안

내했다.

이어 상인회 대표들의 건의·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올 한해도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2024년 새해에도 청송군의의회는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하며 섬기는
청송군의의회
CheongSong County Council

군민과 함께하는 **청송군의의회**, 정책을 실현하는 **청송군의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cs.go.kr>

강원도,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 내 IBSF 아시아 지사 및 Academy 설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제봅슬레이연맹이 주최하고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과 2018평창기년재단이 주관하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이 1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업무협약(MOU)은 총 2건으로,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 내 IBSF 아시아 지사 및 아카데미 설립'과 '지속 가능한 국제대회를 평창과 중국 연청에서 순환 개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IBSF 아시아 지사 및 아카데미에서는 국제 심판과 지도자 육성 워크숍을 개최하여 매년 20개국 15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제대회로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계획하고 있다. 월드컵은 연 1회, 10개국, 100명 이상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시안컵은 종목 최초 국제연맹 주관 신설 대회로 연간 총 8번의 대회를 평창과 중국에서 각각 4회씩 향후 5년 동안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대회 개최 업무협약은 1월 24일 IBSF와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과 먼저 협약을 맺고, 향후 IBSF 측에서 중국 연청 및 관계기관과 별도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의 운영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IBSF 측 운영 프로그램과 국제대회 유치로 매년 450명 이상이 평창군을 방문하여, 연간 10억 원 이상의 평창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대회 유치로 경기장 대관료 등 연간 2억 원 상당의 운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선수 중심 동절기 사용에서 일반인 대상 사계절 레저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구조를 꾀하고 있다.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인 1박 2일에서 반영 된 스포츠 봅슬레이를 일반인 대상 레저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MOU)은 2018 평창 올림픽 문화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국제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아산시,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서 7위... '역대 최고 순위'

기존 40위권 → 8위 급등 이후 줄곧 상위권 머물러

아산시가 2024년 1월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전국 7위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조사에서 아산시가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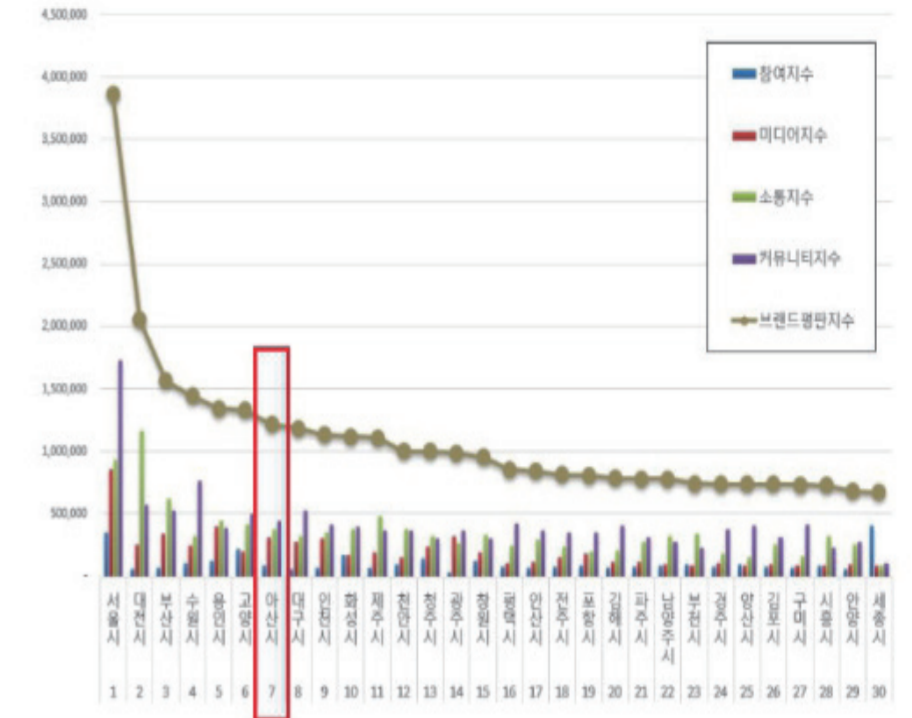
이번 순위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 참여지수·미디어지수·소통지수·커뮤니티지수 등 분야별 지수를 합산해 도출한 것이다. 1~3위는 광역도시인 서울·대전·부산시가 차지했다.

아산시는 인구 200만 이상 광역시는 물론 100만 이상 수도권 도시들을 제치고 기록한 상위권 순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 40위권에 머물던 아산시는 2023년 4월, 8위로 급상승하며 처음 10위권에 진입했고, 2024년 1월 7위로 자체 기록을 다시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 4조 1천억 원 투자를 필두로 한 총 29개 기업 5조 5천억 원 규모 투자 러시, 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1조 원 규모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의 예타 확정, 전국 최대 규모로 건립 예정인 KTX 천안아산역 광역 복합환승센터 등 연이은 굵직한 호재의 결과를 상승세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민선 8기 들어 도시브랜드를 '아트밸리 아산'으로 바꾸고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것도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아트밸리 아산'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가 기존 아산시의 '산업 도시', '온천 도시' 이미지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도



전적인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부여하고, 도시경쟁력 역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 우수상 ▲2023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문화예술 정책 분야를 평가하는 외부 시상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1호 법정 온천도시 지정, 대한민국 최초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등 지난해 아산시가 온천 분야에서 거둔 성과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경귀 시장은 "광역 단위 도시, 기초 단위 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한 조사에서 아산시가 역대 최고 순위인 7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며 "민선 8기 들어 문화·예술·관광, 산업·경제, 교육·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도시브랜드가 여러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품격 있는 도시 인프라, 고품격 문화예술 정책, 기업이 먼저 찾는 친기업 정책 등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끌어올리고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백종원과 함께 푸드테크산업 이끈다

도·예산군·더본코리아·공주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유치 '시동'



충남도가 신생기업(스타트업)이 주를 이루는 푸드테크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 관련 국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백종원 대표와 힘을 합친다.

도는 24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과 도중선 예산군 부군수, 박운제 공주대 식품공학과 교수, 변준호 (주)더본코리아 본부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산업육성 및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식품생산 체계 구축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국민의 식품안전 보장에 협력

한다. 구체적으로 더본코리아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푸드테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공주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제품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도의 푸드테크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한다.

도와 예산군은 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 집적지구 내에 푸드테크 혁신집적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 등을 조성해 농생명 산업 국가 선도 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에 나선 연구지원센터는 푸드테크 혁신집적지구 조성 필요 거점 지원시설로,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

까지 105억원을 투입해 1만 2892㎡(390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기업 입주공간(연면적 1000㎡ 이상),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험 장비가 구축되며,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지원 등을 제공한다.

구축분야는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이며 분야별 여건을 고려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비가 도입된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新)산업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일인 만큼 참여 유관기관은 물론 도민분들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신생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대응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본격 추진

산업단지 현장 중심,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024년 충북 청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설명회가 25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 직주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년도 사업 성과 및 올해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전환 지원시책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충북도, 청주시, 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가 지원한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충북 청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4개 산업단지(청주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의 디지털 제조기반 강화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스마트 제조교육은 경영자 인식 개선을 통한 스마트제조 확산 분위기를 제고하고 재직자의 스마트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

구직자 교육은 수요대응 미래 인재양성을 목표로 청주대, 충북대, 도립대의 자원을 활용, 스마트제조와 연계되면서 특화업종에 활용이 가능한 학과에서 참여하는 학위과정과 경력자 및 구직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취업지원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청주상공회의소가 취업연계 활동을 전개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입기업에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교수, 연구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투입되어 스마트제조 수준진단 및 현장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개년으로 진행되는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은 약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산단 인근 대학·기관 내에 교육인프라 구축하고 약 1,030명의 재직자·구직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대학교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단(043-299-7381~2)에 문의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국가 대표 특화작목 전담 연구기관 선정

정희용 국회의원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등 관계자 참석, 연구기관 현판식 개최
스마트팜 수경재배, 수출 맞춤형 기술 개발로 매년 200억 원의 파급효과 유발
디지털 로봇 기술 접목 대한민국 대표작목 참외,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 연구소가 '국가 대표 특화작목 전담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24일 정희용 국회의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참외 명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19. 7. 9.)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위원회에서 69개 지역특화작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 규모화, 수출 경쟁력 등을 평가해 참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9개 대표작목을 선정했다.

경북 참외는 우수한 시장성과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알려져 있어 국가 대표작목에 선정됐으며, 성주참외과채류 연구소는 농가소득 증대, 지역발전 가능성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연구 역량을 평가받아 참외 전담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농촌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극복, 미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팜 모델과 장거리 선박 수출 기술 개발, 농가 기술 지원을 위한 참외산학연협력단 운영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농촌진흥청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 농가소득은 2020년 873만 1천 원/10a에서 2023년 1천 16만 6천 3백 원/10a으로 16.4% 증가해 3년간 경북지역에서 약 607억 원의 소득향상



에 기여, 매년 2백억 원의 파급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스마트팜 수경재배 기술 개발로 참외 생산량을 1.7배 높였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저장 기술 연구, 수출 적품종 선발, 참외요리 34종이 수록된 참외요리 레시피 책자발간 등을 통해 수출량은 2022년 312.7톤에서 452.8톤으로 증가했으며 호주와의 수출 검역 협상이 마무리돼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국가 대표 특화작목 전담 연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참외 생산 시스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대학, 기업체와 협력해 방제, 운반, 수확작업을 대체하는 농업 로봇 활용 기술 개발로 노동력 부족 문

제를 해결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재배 시스템으로 전환, 에너지 자립 기술 개발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참외 생산액 8천억 원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상북도는 참외, 포도, 복숭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특화작물의 탄탄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2030년까지 노동인구는 약 3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일손 부족은 심해지고 탄소중립, ESG 등 국제사회 규범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높여야 할 시점이다."라며 "로봇 기술과 새로운 참외재배 시스템을 적극 개발해 경북 참외가 대한민국 대표작목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 상품권 출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편하게, 더 싸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 상품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로컬푸드직매장 상품권'은 10만 원 당 5천 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도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청정 영양의 신선한 농산물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빛깔찬 고춧가루, 영양 은하수 막걸리, 상화병 등 지역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농특산품도 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은 20년 7월 개장한 이래로 1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군 직영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23년에는 전년 대비 58% 매출이 향상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영양군은 출하자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최저 수수료(농산물 8%, 가공식품



10%)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자 교육 및 면담을 수시로 진행해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양군 중소고령여성농과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인 영양군로컬푸드직매장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 최고의 농산물과 육류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길 바란다.

윤근수/기자

안양시, 녹스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양시는 옥내급수설비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가구를 위해 녹스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개량사업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이면적1가구 기준 연면적이 130㎡ 이하인 단독·다가

구주택 또는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176만원 내에서 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30~90%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는 전액(공고한 표준 총 공사비 기준 100%,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또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공용배관을 교체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별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청 1층 수도시설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세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될 수 있으니, 교체 계획이 있는 가구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수도시설과(☎031-8045-56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우용/기자

문경시 (주)더원과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미디어아트 복합 한옥호텔 건립에 150억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경시는 지난 2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주)더원과 한옥호텔 건립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의장, (주)더원 이원용 대표를 비롯해 진후진 문경시의회의 의원과 (주)동해기술종합공사 장남중 대표, (유)아키어반 전 우석 대표, (주)아이랩미디어 윤현정 대표, (주)이로움 강경역 최고운영자 등 협력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더원은 문경시 문경을 상초리 288-6번지 일원에 약 15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며, 전통 한옥에 미디

어아트를 결합한 복합체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56실 규모의 객실, 연회장, 미디어아트 복합 카페 등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경새재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인 전통한옥과 현대적 감성의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시에 투자자를 밝혀주시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문경새재의 관광과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포항시, 푸드테크 사업 집중 육성으로 미래 신산업 선점

푸드테크, CES 2024에서도 5대 트렌드로 주목받는 미래 유망시장

포항시가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푸드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분야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식품과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 신산업 '푸드테크'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CES 2024에서 5대 주요 트렌드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산업 분야다.

이에 포항시는 푸드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포항공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계약학과 선정 ▲푸드테크 산학협력체 K-키친 추진위원회 출범 ▲대체식품 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포럼(BAFE) 개최 ▲집단지식시설 푸드테크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에도 포항시는 핵심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을 통한 푸드테크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로봇 등 스마트 제조 분야 육성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으로 푸드테크 신기술 실증 연구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 및 식품 기업들의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식업 또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푸드테크를 적극 도입해 지역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푸드테크 기반 시설 구

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보급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등을 첨단 기술에 기반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꿈트리 내 푸드테크 교육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강덕 포항시장은 "식품산업이 전통적인 범주를 넘어선 첨단기술 융합 푸드테크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물론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북교육청, 산업재해 STOP!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도약

도내 전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도내 공·사립 학교 1,000여 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 3,142명을 대상으로 '급식종사자 겨울방학 중 정기 안전보건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급식종사자 등 현업업무종사자는 연간 24시간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급식종사자의 경우 학기 중 바쁜 급식업무 수행과 방학 중 비공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수강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교육 수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방학 중 각 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3권역(구미, 경주, 안동)으로 나눠 진행하며, 강사진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강사 △경상북도교육청 안전관리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교육부 직원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Human error)는 전체 사고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의 근간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종별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결연식 개최

신규·선배 공무원 간 소통 네트워크 구성 및 조직 적응력 함양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수),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후견인제(멘토링제)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연식은 멘토-멘티 선서문 낭독, 교육장 격려인사, 청렴교육 및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에 첫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들이 조직 내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공직 생활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번 결연식을 시작으로 신규공무원들은 1년 동안 멘토-멘티 간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선배공무원들의 노하우 및 업무지식을 전수받게 될 것이다.

이창희 교육장은 "지방공무원 후견인제를 통하여 선후배 공무원 간의 체계적인 업무 지식의 공유뿐만 아니라 조

직 적응력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호 신뢰감 형성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예천교육을 이끌어 갈 인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교육청, 장애 학생 치료비와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경북 특수교육 서비스 강화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년에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 학생 치료지원과 특수방과후학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 학생 치료지원은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300명이 늘어난 4,400여 명이 지원받게 되며, 지원 예산은 6억여 원이 증가한 총 89억여 원을 편성했다.

장애 학생 치료비는 학생 1인당 월

17만 원, 연 최대 204만 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고 금액을 지원한다.

치료비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등 7개 영역 중에서 학부모의 희망과 학생의 장애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1개 영역을 지원한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후 학교 운영은 장애 유아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이다.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참여율은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작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총 79억여 원을 편성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은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특기.적성교육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학생은 이 중 한 가지 유형을 지원받게 된다.

특수학교의 방과후교실과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은 학교 내에 개설되는 방과 후 학급을 기준으로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며, 특수학교는 학급당 연간 최대 1,600만 원, 유치원은 2,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기.적성교육은 학생 1인당 월 12만 원이 지원되며 ▲농.산.어촌 지원 ▲자유수강권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치료지원과 특수 방과 후 활동은 교육의 질을 무궁무진하게 향상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 교육과정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양적 지원과 함께 질적 가치도 함께 높여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놀이로 배움이 자라나는 행복교육

2024 포항유아교육계획 연수회 개최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월),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놀이로 배움이 자라나는 행복교육으로 2024 포항유아교육 계획과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2024 포항유아교육은 놀이로 배우는 즐거운 교실, 미래를 여는 행복

교단,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복지, 공감 행정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 4개의 추진 방향과 10개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연수도 실시하였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포항유아교육, 유치원 규칙(학사 관련) 작성 안

내, 나이스 도입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개재요령을 이해하는 연수를 실시하였고, 사립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포항유아교육, 유치원 규칙(학사 관련) 작성 안내, 유치원 나이스 도입으로 인한 임용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공·사립 유치원 운영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포항교육지원청 천충복 교육장은 "오늘 유치원 교육과정과 2024 포항유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각 유치원에서는 우리 포항지역의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놀이로 배움이 자라는 포항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서광교 단 하나의 프리미엄 주거복합단지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1월 OPEN(예정)

1577-7549

제설 사각지대란 없다! 성동구, 스마트 제설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겨울 통행권 제공

도로열선 40개소 7.43km, 자동분사장치 4개소 1,64km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가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한 스마트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을 제공하고 있다. 간선도로와 급경사지에 비하여 제설이 취약했던 이면도로에는 제설 작업을 더 강화했다.

이번 겨울 예기치 못한 폭설과 잦은 한파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간(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무려 9번의 강설로 약 31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12월 30일에는 6시간이 넘게 지속되는 폭설로 일적설량 12.2cm, 12월 기준 42년 만의 최대 적설량을 기록한 바 있다.

구는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제설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인 도로열선을 기존 22개소 3.68km에서 18개소 3.75km 추가 설치해 현재 총 40개소 7.43km의 도로열선이 설치됐다. 도로열선 구간에는 도로포장면 7cm 아래에 열선이 매설돼 있다. 눈이 많이 오면 온도·습도가 감지되어 자동제어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도로에는 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열선 설치가 어려운 경사지에는 2022년부터 고정식 자동분사장치 4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23년 12월 마을버스 통행로, 응봉교 교량 옆 램프구간 등 3개소에 840m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4개소 1.64km의 도로

에서 운영되고 있다. 염수분사장치는 염수용액을 살포하는 제설 장치로 경사가 심해 제설 차량 접근이 쉽지 않은 급경사 구간에서 특히 효과를 발휘한다. 성동구 내 도로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설치 구간은 총 9.07km다.

제설작업도 강화했다. 그간의 제설작업은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간선도로, 급경사지, 버스노선 위주로 시행했으나, 용역을 확대해 비교적 제설에 취약했던 이면도로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사고 없는 통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제설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및 급경사지 구간에 제설함 488개소를 비치했다. 특히 5~10kg의 소용량 제설제로 구비하여 이용 편의를 더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 제설도구함 20개도 추가 비치했다.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도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146톤의 제설제 지원을 마쳤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겨울철은 쌓인 눈과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성동구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제설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완판 신화 기록...영등포구, 지역사랑 상품권 40억 펀다

서울 Pay+ 등 5개 앱에서 월 50만 원까지 구매, 1만 2천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영등포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차림 비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5% 할인된 가격으로 영등포사랑 상품권 40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다.

영등포사랑 상품권은 구 소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충전 방식의 모바일 상품권이다. 구간 발행될 때마다 구민의 큰 호응에 힘입어 조기 완판 기록을 세우고 있다.

상품권 발행 일자는 오는 30일, 오후 4시이다. 발행 규모는 40억 원이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 pay+)'를 포함한 ▲티머니페이 ▲신한셀뱅크 ▲머니트리 ▲신한셀페이의 5개 애플리케이션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총 보유한도는 150만 원이다. 충전하기 전에 상품권 잔액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구매 소재한 상점, 음식점, 카페 등 12,500여 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가맹점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사용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전액 미사용 시에는 전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잔액 환불 시에는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구는 발행 당일 상품권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발행 전날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서울 pay+) 애플리케이션 등을 내려받고,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설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의 싹틔움인 소상공인에게는 힘이 되어 드리 고자 영등포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라며 "지역 소상공인, 구민 모두가 밝고 풍요로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4천 7백 명 세금고민 해결...송파구 '무료세무상담'

2009년부터 누적 이용자 수 4,700명...'23년 상담자 99% '만족'

송파구가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지난해까지 누적 이용자 수 4,700명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구는 복잡한 세금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 200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송파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를 중심으로 '무료세무상담관'을 구성하여 14년 동안 무료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14명의 세무 전문가가 매주 화요일마다 구청사 내 설치된 상담실에서 1:1 상담을 진행한다.

2023년 한 해 총 294명의 납세자가 세무상담실을 찾았다. 구에 따르면, 이들이 주로 관심을 보인 세금 분야는 양도소득세(124건, 42.2%), 상속·증여세(118건, 40.1%)이며 취득세(27건, 9.2%), 종합부동산세(25건, 8.5%)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상담을 진행한 구민 중 99%가 '만족'을 표하며 '계속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방객들의 각기 다른 고충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서 높은 만족도와 추가 상담수요까지

보인 것이다.

실제로, 구 관계자는 "상담 후 입을 모아 유용한 시간이었다며 칭찬해 주신다. 30여 분간의 대담 이후에는 다음 예약일정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추가 상담 요청도 많다."며 그 인기를 전했다.

세무상담을 원하는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까지 1:1 상담이 가능하다. 세무2과로 전화해 예약하고 약속된 일시에 구청 2층 무료세무상담실로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무료세무상담은 비용걱정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송파구만의 세금상담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만족도 높은 고품격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2024 설맞이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

발행일시 2024. 1. 30.(화) 16:00
구매한도 1인당 월 50만원(보유한도 150만원)
구매처 서울 Pay+, 티머니페이, 신한셀뱅크,머니트리, 신한셀페이
사용처 관내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

5% 할인

STAY여더
고려 태조왕건부터 이어져온 대게의 본고장 '영덕'

천년의 맛! 영덕대게

영양 들어다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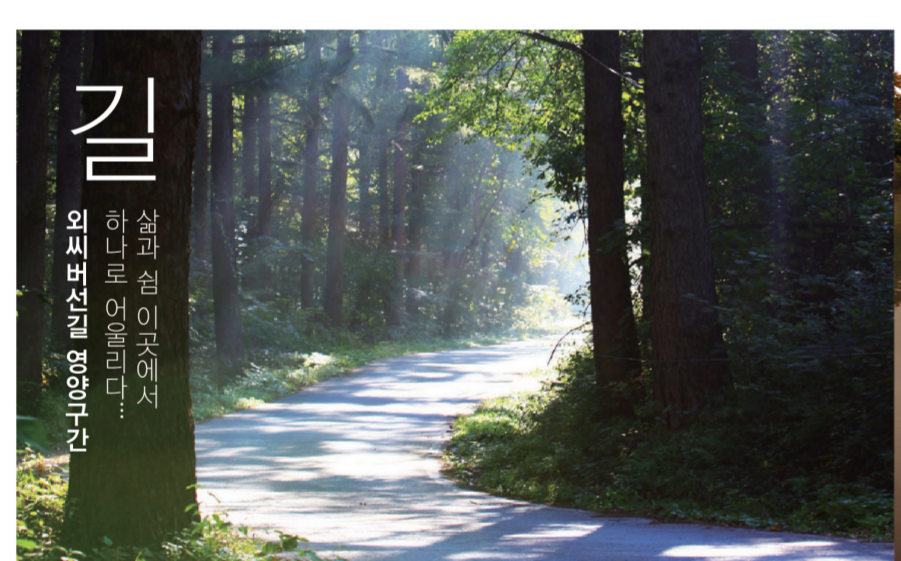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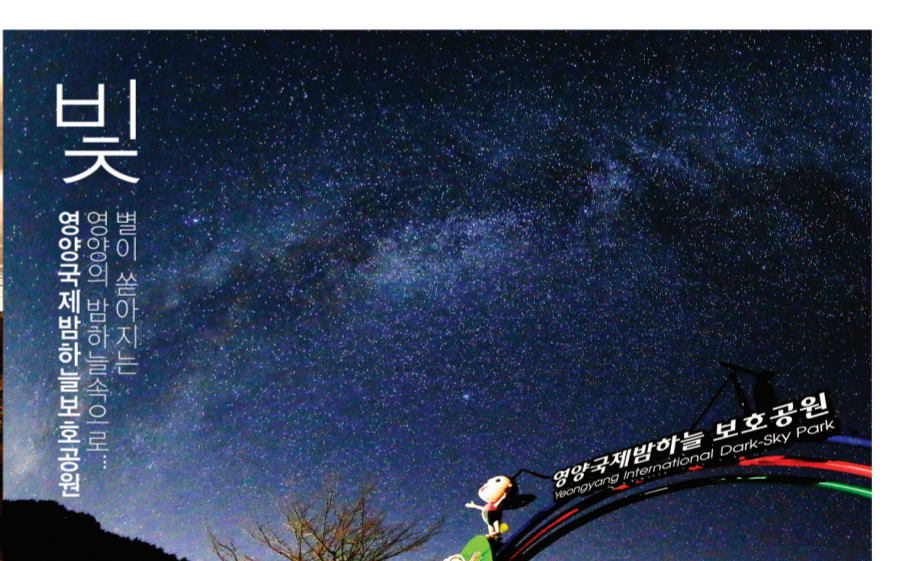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름답게 숨어있고...
의외롭게 영원이니



물
영양의 평온하고
은밀한 아름다움...
영양이 숨겨진 곳이니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반짝이는 밤...
영양이 빛나는 곳이니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서식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